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44 >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현악 4중주 걸작,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협연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 제152회 정기연주회 | 7월13일 오후 8시 |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난해 국내 민간 챔버 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창단 50주년을 맞이한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기존의 서울바로크합주단이 이름을 바꿨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현악 4중주 중 희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를 연주한다. 정확한 말러가 챔버 오케스트라 용으로 편곡한 '죽음과 소녀'이다. 독일 현대음악의 전령사로 불리는 프랑크 크라머가 지휘봉을 잡는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마리술(사진)이 프로 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피아니스트 배성우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도 준비되어 있다. 20세기 현대음악의 기수인 아르보 파트의 작품이 국내 초연된다. 제목은 'Festina lente'.



임현정이 지휘하는 세종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세종체임버시리즈-오마주 투 모차르트 | 6월25일 오후 5시 | 서울 세종 체임버홀

모차르트 탄생 2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세종 체임버시리즈-오마주 투 모차르트'의 두 번째 연주회. 이 시리즈는 해마다 대표 아티스트를 상주 음악가로 선정해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을 선보이는 세종문화회관의 정통 클래식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첼리스트 양성원에 이어 올해는 지휘자 임현정이 선정됐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임현정이 지휘하는 세종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사진)이 협연자로 나선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텐토 2번, 피아노 협주곡 20번과 26번을 연주한다. 모차르트는 무려 27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다. '오마주 투 모차르트'는 올해 총 네 차례 열린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10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11월)이 바통을 잇는다.



강요셉·사무엘 윤, 파우스트·메피스토펠레 출연

●베를리오즈 : 파우스트의 겁벌 | 8월19일 오후 8시 |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파우스트의 겁벌'은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토대로 쓴 작품이다. 관현악의 색채가 화려하고 독특하며, 솔로 성악가와 합창의 조화가 이상적이다. 연극처럼 공연하기보다는 오페라 콘체르탄테(콘서트 형식의 오페라)로 공연하기에 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괴테 탄생 250주년 기념공연으로 초연된 이후 연주된 적이 없다. 이번 공연에서는 테너 강요셉과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이 각각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로 출연한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 도이체오퍼 극장이 제작한 '파우스트의 겁벌'에 나란히 출연해 화제를 불러 일으킨 조합이기도 하다. 메조 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가 마르케리트 역을 맡는다. 지휘는 에밀 타바코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서울 시합창단이 함께 한다.



새음반

●신지아 in Live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의 새 앨범이 나왔다. 리사이클 실황을 담은 라이브 앨범이라 더욱 반갑다. 신지아의 싱상한 연주 호흡과 현악의 열기를 단숨에 귀로 느낄 수 있다. 앨범은 2015년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연주회 실황인 슈베르트로 시작된다. 피아니스트 한지원과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환상곡을 들려준다. 소나타도 좋지만 가곡 '그대에게 임함'의 주제가 등장하는 환상곡 C장조가 마음을 움직인다. 슈베르트에 이어지는 6개의 트랙은 J.S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2번이다. 좀 더 앞선 2013년 LG아트센터 실황이다. 이 곡은 콩쿠르를 통해 라이징 스타가 된 이후 프로연주자로 자리매김한 신지아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던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바흐의 음악처럼 '기본(Basic)'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담았다고 한다. 신지아의 싱상하게 살아 뛰노는 활의 움직임을 풍성하게 감싸고 있는 소리는 디토체임버오케스트라의 솜씨다. 바흐의 화려하게 약동하는 리듬을 짙은 지휘자 아드리엘 김이 정확하게 포착해냈다. 신지아의 연주는 마치 여러 겹의 얇은 천을 꿰매는 손바느질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음표와 음표들, 소리와 소리를 주고, 그리고 관객의 마음을 가늘고 긴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여 감는다. 듣고 있으면 웬지 쓸쓸하면서도 안도감이 든다. 이런 소리를 내는 연주자는 확실히 드물다. '6월의 가을' 같은 연주라니!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금호타이어, 무빙 포토 클래스



금호타이어가 한국메세나협회와 '금호타이어와 함께 하는 무빙 포토 클래스'(사진)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직업 체험 교육 후원에 나섰다. '무빙 포토 클래스'는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에 대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맞춰 이를 기획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 학기당 총 6회(12시간)에 걸쳐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사진 수업과 함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 9월에 시작되는 2차 '무빙 포토 클래스' 학교 신

청은 30일까지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www.mecenat.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원라면참치' 3종 출시



동원F&B가 라면에 넣어먹는 토핑용 참치 파우치 '동원라면참치' 3종(살코기참치·고추참치·치즈참치·사진)을 출시했다. '참치를 라면에 넣어 먹는 레시피'에 착안해 참치의 용도를 넓히고자 개발한 제품이다. 라면과 배합했을 때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3종의 제품별 원료 배합을 각각 달리했다. 국물에 풍미를 더해주는 특별소스와 함께 라면의 식감을 살려주는 아채 등도 함께 넣었다. 또한 라면 1개를 끓였을 때 가장 알맞은 양인 65g의

파우치 형식으로 출시해 최적의 라면 토핑용 참치로 만들었다. 동원라면참치 3종의 가격은 65g 1개에 1480원이다.

웹툰 '뮤 오리진', IP 웹툰으로 확장

웹툰은 KT와 제휴 협력을 맺고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의 지적재산권(IP)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8월 말까지 KT웹툰에서 '썬툰'과 '개천고', '그녀는 무사다', '악마도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등 인기 작가가 참여한 총 4편의 브랜드 웹툰을 연재한다. 웹툰은 또 KT웹툰 IP 제휴를 통해 뮤 오리진의 캐릭터 상품 제작과 제휴 영역 확대 등 수익다변화 모델도 추진한다.

매일유업, '#우유원장' 캠페인

매일유업의 락토프리 우유 브랜드 '소화가 잘되는 우유'가 우유를 마시는 즐거움을 되찾자는 의미의 '#우유원장'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고,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일유업과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연계하여 캠페인 이벤트 참여자 1명당 우유가 꼭 필요한 어린이 1명에게 일주일 분량의 '소화가 잘되는 우유' 멸균제품을 기부한다. 참여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배탈, 더부룩함, 가스 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유 속 유당(락토스)을 매일유업만의 차별화된 락토프리 공법을 통해 분리·제거한 국내 최초 락토프리 우유다.

'서머너즈워' 글로벌 흥행 톱10

컴투스네는 글로벌 서비스 2주년을 맞은 인기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워: 천공의아레나'(사진)가 현재까지 애플스토어 106개국, 구글플레이 91개국에서 게임 부문 톱10에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RPG 장르 1위를 기

록한 국가 수는 누적 96개국에 달한다. 특히 아시아 24개국, 유럽 35개국, 아프리카 10개국, 북미 25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등으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흥행에 성공했다. 한편 2주년 기념 인포그래픽 영상과 이미지는 게임의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공식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넥슨 '진삼국무쌍:참' 퍼블리싱 계약

넥슨은 대만 게임사 엑스팬텐터테인먼트와 '진삼국무쌍:참'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엑스팩이 코에이테크모게임즈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 연내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이다. '진삼국무쌍7'의 지적재산권(IP)을 바탕으로 한다. '일기당첨'의 액션소스를 비롯해 원작에 준하는 규모의 맵 스테이지 등 방대한 콘텐츠를 담았다. 커뮤니티 요소와 간편한 조작 등 모바일게임에 특화된 다양한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번 계약으로 넥슨은 중화권과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서비스 판권을 갖게 됐다.